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지."



[제 1독서] 창세 22,1-2,9, 10-13, 15-18
[화답송] 시편 116(115), 10과 15, 16-17, 18-19, 21(◎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한네. ◎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 모든 백성이 모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제 2독서] 로마 8,31-34
[복음 환호송] 마태 4,4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르 9,2-10

성가	8시 미사	입당 490	봉헌 517	성체 161 165	파견 280
	11시 미사	입당 490	봉헌 517	성체 161 165	파견 280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 2주일(3월 1일)		사순 제 3주일(3월 8일)		사순 제 4주일(3월 15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채성일 토마스	1구역:염명련 파트리샤	임승원 투카	2구역:조선덕 레지나	정애리 스텔라	3구역:김미숙 딸가리다
제 1 독서	강신희 요한	1구역:최대연 다니엘	최환준 베네딕토	2구역:심태규 미카엘	정일환 프란치스코	3구역:
제 2 독서	정애리 스텔라	1구역:이명란 아네스	최수영 베네딕타	2구역:심승화 헬레나	정영희 글라라	3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예수님을 위한 조연, 우리들

최근 유행하는 영화들을 보면 관객 동원수가 수백만에서 천만을 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의 연기력과 시나리오의 탄탄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영화배우의 푸념처럼 기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영화는 우리나라 개봉관 스크린의 절대다수를 한꺼번에 차지해서 흥행을 한다. 영화를 보러간 관객들의 선택 폭이 좁아들 수밖에…….

인기몰이를 하는 영화를 보면 내용의 구성이 탄탄한 경우도 있겠지만, 주연배우의 인지도나 연기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한 가지 더, 주연배우를 빛나게 해주는 조연배우나 카메오, 우정출연 배우들의 역할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예수님은 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만 보아서도 그 생애의 주인공이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사는 교회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 영화를 더욱 빛나게 해 주는 것은(물론 예수님은 그 자체로 빛나시지만), 조연인 우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조연 배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수님 출연의 영화는 빛을 잃고 말 것이며 교회의 빛도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 출연의 영화, 예수님 그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조연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연이 되고 그 역할도 잘 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는 그분이 출연하신 영화 속의 조연이 된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연이 되는 것이다. 본당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연의 모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본당의 손님이나 이방인이 아닌 주인이 된다.

주인은 쓰러져가는 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집을, 모든 것을 용성하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예수님을 위한 조연인 우리들이 삶의 주연의 생활로 예수님의 변모와 같은 변화되는 삶을 체험하자.

사순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을 향한 생활의 변화가 요청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기도와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생의 영화는 미완성이다. 사순시기는 우리가 우리자신의 출연 영화를 완성하고 변화시켜 예수님의 모습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시기이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서 찾고 따라야 하는 시기이다.

주세의 요한 세례자 신부
인천군중교구



아버지는 아들을 배척하지도 벌을 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할 법도 하건만, 아버지가 하는 것은
그저 기뻐서 잔치를 축하연을 명하는 것이 전부다

글_앨버트놀런 신부, 그림_구민정엘리사벳

생명의 말씀

고통을 이겨내는 ‘영적인 보약’

타볼산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당신의 수난을 예고하셨습니다.(마르 8,31-33) 그때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다.”고 나섰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당신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신을 따르려면 먼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8,34)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몹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 주시고, 마귀를 내쫓으시며, 풍랑도 가라앉히고 물 위를 걸으셨던 스승님이셨습니다. 빵을 많게 하시어 사천 명도 먹이시고 오천 명도 배불리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을 예고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그런 당혹스러움을 눈치 채셨나 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보여준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당신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천상적 위로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의심 없이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모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이할 고난에 대비한 ‘영적인 보약’과 같습니다. 그 영광스런 모습을 가슴에 묻어 하느님께 대한 확신을 얻고, 시련을 극복할 힘도 얻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 제자는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고난은 잊은 채, 그저 달콤한 ‘보약’에만 취해있는 듯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지만, 막상 시련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느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나의 십자가가 더 커 보이고, 그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현실을 원망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도

달갑지 않습니다. 일 년 내내 부활절이고 기쁨의 알렐루야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을 지어 여기서 살고 싶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사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독서가 전하는 아브라함의 고통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내놓아야 했지만,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고통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지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로마8,31)이 되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미사 때 성체성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당신의 거룩한 현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보약’입니다.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성당은 우리에게 ‘영적인 타볼산’입니다. 아멘.

유경춘 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말씀의 향기

설탕과 슈가

어떤 이는 슈가가 설탕보다 달다고 합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어느 나라 말로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을 헨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총 3부로 구성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탄생을 제1부에서 다루며, 제2부에서는 수난과 죽음, 부활을 노래하는데 그 2부의 끝 곡이 유명한 합창곡 <할렐루야>입니다.

<메시아>는 헨델의 다른 오라토리오와는 달리 전체 가사를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수난을 시작하는 제2부 첫 곡의 가사가 요한복음에서 인용한 “Behold, the Lamb of God” 입니다.

원곡의 언어인 영어로 이 곡을 듣고 노래할 때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가사의 내용을 막상 우리말로 확인하니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어 가사를 우리말로 생각하면서 새롭게 가사의 의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가 이 짧은 합창곡의 전체 가사입니다.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을 수난을 시작하는 가사로 사용한 연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의 수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바로 이 구절은 미사 때 영성체 직전에 드리는 ‘하느님의 어린양’ 기도문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은 라틴어로 ‘아뉴스 데이’ 라고 하며 음악 전공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미사 음악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미사 음악은 우리 미사 통상문 중에 다섯 기도문을 가사로 작곡하는, 600년 이상 전통이 지속되어온 대표적인 가톨릭 종교음악입니다. 이 미사 음악에서는 마지막 악을 장식하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오라토리오 <메시

아>의 수난 부분에서는 첫 곡으로 작곡된 것입니다.

수난을 알리는 첫 곡으로도 어울리고 미사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영성체 예식으로도 어울리는 ‘하느님의 어린양’ 이라는 문구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의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양’ 직후에 신부님이 성체를 높이 들고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저는 매주 반복되는 이 말씀에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라며 기계적으로 응답했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동안 우리는 미사 때마다 파스카 잔치에 참여했던 것이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굳이 영어(the Lamb of God)나 라틴어(Agnus Dei)가 아닌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말로도 항상 새롭게 느끼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허영한 요셉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성경산책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오늘 제 1독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본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인 칼데아의 우르는 당시에 문화가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람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람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땅과 부모와 친구를 떠나라는 것은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의 마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수없이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느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 아브람이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 대해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12,1-9

고향을 떠난 아브람에게 첫 시련이 다가옵니다. 기근이 들어 아브람은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자칫하면 아브람은 목숨을 잃을 처지여서 그는 거짓말을 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는 어떤 거짓말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12,10-20

아브람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느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하느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 않자 초조한 나머지 여종인 하가르를 소실로 들였지만, 결국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결국 하가르에게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16,1-16

아브라함은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점점 더 고통의 늪으로 빠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시련은 아들 이사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이사악 때문에 생애 중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니

다.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22,1-19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혹에 빠지고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만 회개를 통해 결국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허영업 마티아 신부
서울 대교구

♥ 광호 속을 채워 보세요.

나는 너를 ()이 되게 하고,
너에게 ()을 내리며,
너의 ()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이 될 것이다.(창세기12,2)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 ()’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고들 한다.
(창세22,14)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처럼,
바닷가의 ()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 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을 받을 것이다.
(창세22,17-18)

- 성 경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2월 22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연	신마태오(현규)	윤사비나
	연	신마태오(현규)	임루시아
	연	권데레사	윤사비나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뜨락회
	연	박마리아/전대석	전데레사(속회)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본당신부님	전데레사(속회)
	생	이아가다(윤자)	가족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김그레이스(민정)	전수산나
	생	구안나 생일	임루시아
	생	전다니엘/토마스	전데레사
	생	이베네딕토/유스티나	박데레사
	생	신유스티나(점숙)	김데레사
	생	유데레사	3구역일동
	생	서데레사	3구역일동
	생	심데레사	3구역일동
	생	조엘리사벳	3구역일동
3월 3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김데레사
3월 4일 수	생	송아가다(분학)	박헬레나
	생	황안나(정희)	박헬레나
	생	이정우	전수산나
3월 5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신마태오(현규)	곽유스티노
	생	하느님의뜻영성회원	서데레사
3월 7일 토	연	돌아가신레지오단원	꾸리아
	연	이요한(무환)	이막달레나
	연	이마리아(수영)	이엘리사벳
	생	꾸리아회원	서데레사
	생	성령기도회원	서데레사
	생	김가브리엘라(애린)	부모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91	196	24	311
헌 금	\$615	\$1,229	\$24.25	\$1,868.25

< 교무금 > \$3,065

임석호(2) 정일양(2) 최옥경(3-4) 정창희(2)
 윤성진(1-2) 이재우(1-2) 정진희(3) 신기수(3-4)
 장찬호(1-3) 성태성(1-6) 박호영(2-3) 박찬길(1-3)
 이순열(2)

< 성소후원금 > \$30

정창희(2) 박호영(2-3)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신점숙 \$500

< 2차 헌금 > \$783.16

* 고 신현규 마태오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1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오늘은 피정 관계로 전신자 점심이 제공됩니다. ~~~~~

- 공 지 사 양 -

◆ 전례안내

성시간 : 3월 5일(목)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성모신심미사 : 3월 7일(토) 아침 7시 30분  
(꾸리아월례회)

◆ 환자봉성체 : 3월 6일(금) 아침 미사 후

◆ 지속적인 성체조배

3월 6일(금) 저녁 9시 ~ 3월 7일(토) 아침 7시까지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2차 현금

3월 15일 : Catholic Relief Services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친교실과 성당입구에서 Rice Bowl을 가져가십시오.  
사순시기 동안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저축하셨다가 사순시기 끝나는 날 봉헌해 주십시오.  
모아진 금액은 교구로 보내져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 사순피정 - 오늘 점심 식사 후 강의

주제 :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피정지도 : 흥젼마 수녀님 외 3분의 수녀님  
\*\* 친교실에서는 바오로딸 도서선교가 있습니다.

◆ 견진대상자 신청

4월 26일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견진대상자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 견진교리 안내

\* 3월 15일, 3월 22일 오후 1시 ~ 2시  
지도 : 조마오로 수녀님  
\* 4월 12일, 4월 19일 오후 1시 ~ 2시  
지도 : 본당신부님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화요일/문의 510-847-3014  
\* 사목회의 : 3월 1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성모회 총회

3월 15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45세 ~ 65세의 모든 자매님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일일피정

일시 : 3월 14일(토) 아침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Mercy Center(300 Adeline Dr. Burlingame)  
주제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루카 11,2)  
강사 : 한승주 스테파노 신부님  
참가비 : \$15.00(Pay to the order of KSCNC)  
준비물 : 성경, 묵주, 필기도구  
문의 : 영명련 파트리샤 503-369-2945

◆ 북가주 26차 ME 첫주말 초대

일시 : 2015년 4월 10일 - 4월 12일  
장소 : Vallombrosa Retreat Center, Menlo Park  
참가비 : 부부당 \$ 300.00  
연락처 : 한치용 요셉 415-810-3175  
한현자 헬레나 925-285-2038

◆ 여성 10차 꾸르실료 주말 봉사자 신청

꾸르실료 주말 : 6월 25일(목) ~ 6월 28일(일)  
신청 : 이창용 레이몬드(간사) 510-688-0157

◆ 전례 성가대 새로운 단원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연습시간 : 교중미사 전(오전 10:00 ~ 10:50)  
교중미사 후 1시간  
\* 성가대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보이스 클리닉도 있습니다.

◆ 성물방 Sale

사순시기 동안 도서/성물을 20% Sale 합니다.(초 제외)

◆ 헤어컷봉사자께서 도네이션 받으신 \$100을 트라이벨

리 성당 성전기금마련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또한 \$30은 빈첸시오회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다음 주일인 3월 8일에는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날

입니다. 미사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구네군다(3/3) : 지춘분  
\* 가시미로(3/4) : 김영민

| 주일학교 소식 |                             |
|---------|-----------------------------|
| -       | Sunday School 11:00 ~ 12:15 |
| -       | 영어미사 : 오후 12시 30분           |

| 안국학교 소식 |                  |
|---------|------------------|
| -       | 3월 7일 : 교내구연동화대회 |
| -       | 3월 14일 : 미술특강    |